韓國心理學會誌 : 發達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90. Vol. 3, No. 1, 48~57

"명확성 요구(Clarification request)" 문장에 나타난 언어적 심리모형

최 수 향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엄마의 명확성 요구 문장에 나타난, 엄마와 아동간의 심리사회적 역동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받아 들여져온 명확성 문장에 관한 서양의 "수선적 기능" 모형을 반증하고 "심리적 모형" 중심의 새로운 시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자의 모형에서는 엄마의 명확성 요구 문장은 아동에 대한 엄마의 특수한 심리사회적 지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특수한 대화적 지각은 한국 문화권내의 일반적인 대인지각 패턴과 관련있는 것으로 본다. 엄마와 아동과의 대화작용에 대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접근을 강조한다.

1. 서 론

엄마가 아동과 대화하는 과정중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대화 패턴의 하나가 "명확성 요구" 문장을 사용한 대화 패턴이다. 이 명확성 요구 대화 패턴에서는 대체로 엄마가 아동이 한 말을 되받아 다시 아동에게 묻는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들어, 아동이 "엄마, 이거 사과"라고 했을 때 엄마는 "이거 사과?"하고 아동에게 되 묻는다.

서양의 문헌(e.g, Cherry 1979;Corsaro, 1977; Gallagher, 1981;Langford, 1981)에서는 이러한 명확성 요구 대화 패턴을 대화의 "수선(repairing)기능" 모형으로 설명해 왔다. 즉 엄마가 아동의 말을 되받아 묻는 이유는, 아동이 한 말이 발음 혹은 의미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로 인해 빚어지는 대화의 진행적 차질을 수선하기 위한, 즉 아동의 불명확한 의사표현을 바로잡아 전체 대화를 완만하게 이끌어 내기 위한 엄마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수선기능 모형에서는 명확한 의사 전달 및 표현을 엄마-아동 대화의 기본적인 목표로 간주하고 엄마의 명확성 요구 문장은 이러한 대화의 기본목표를 향한 일종의 도구적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아동의 대화는 순수한 언어적 현상

이기 보다는 엄마-아동간의 복잡한 심리적 역동관계(psychosocial dynamics)를 바탕으로 한 심리사회적(psychosocial) 현상이다. 엄마가 어떤 형태의 문장을 말하는 가는, 그 엄마가 아동에 대해 어떠한 심리사회적 지각을 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아동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엄마의 노력자체가 엄마의 아동에 대한 특정한 개체적 지각(a perception of the child's individuated self)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이야기 하면, 엄마가 아동을 심리사회적으로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것은 곧 그 엄마의 아동과의 대화 패턴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오기 마련이다.

명확성 요구 문장과 그에 관련된 대화패턴의경우, 위와 같은 "심리적역동관계" 모형이 한층 더 적절한 해석인 듯 싶다. 이는 본 논고에서 제시될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엄마들의 명확성 요구 문장은, 아동의 의사표현이 불투명하거나 혹은 애매하여 명확성 요구를 엄마가 지적을 해야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관찰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는 명확성 요구 문장이 단순한 대화의 수선적 도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 논고의 목표는 한국 엄마들의 명확성 요구문장을 중심으로, 그 기저에 깔린 엄마-아동간의 특정한 심리사회적 역동패턴을 밝히고, 지금까지 주장되어온 수선적 기능모형 중심의 명확성 요구 문장 이해를 한층 개선,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비교 문화적 자료를 구하고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명확성 요구 문장이 삽입된 대화패턴의 심리사회적 역동패턴을 추출해 나갔다.

2. 자료 수집

2.1 참가자

한국과 캐나다에서 4세의 남자아동을 가진 엄마들을 둘씩, 전체 4쌍을 추출하였다. 참가 엄마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1> 엄마들의 경제 사회적 조건

	한 국	캐나다
평균나이	34세	33세
평균학력	14년	14년
평균소득*	50만원(월평균)	$30,064(연평균)
직 업	가정주부	가정주부, 파트타임
자녀수	2	2

*가족당(아버지) 평균소득

아동들의 언어적 능력은 MLU를 기준으로 균일화 시켰다(표2).

<표-2> 아동들의 MLU

한 국	캐나다	Z SCORE
5	4.3	1.4

2.2 절차

각 가정에서 자연스런, 일상적인 엄마-아동의 대화상호작용을 30분씩 15회에 걸쳐 녹화하였다. 녹화되는 상호작용의 내용은 연구자의 특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연스런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집중적 상황"(예를들면, 책읽기와 같이 엄마와 아동이 같이 협동적으로 강도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반 집중적 상황"(예를들면, 식사시간에 일어나는 대화상호작용), 그리고 "비집중적 상황"(예를들면 엄마와 아동이 각기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을때)으로 전체적인 녹화상황의 구분을 지어주고, 3가지 유형의 상황이 골고루 일어나도록 지시하였다. 녹화는 평균 1주일에 두번씩 약 2~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녹화된 자료는 녹화후 즉시 연구자

가 전사하고 후에 각국어의 보조 연구자가 부분적으로 전사를 확인하였다.

확인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3> 전사 확인 비율

	한 국	캐나다
전체확인 문장수	2197	3722
확인율	98%	96%

3. 자료 분석

실제로, 본 논고에서 제시하는 명확성 요구 문장에 관한 논의는 명확성 요구 문장을 위한 연구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연구를 진행시키는 동안 발전해 나온 것이다. 관련된 그 본래의 연구에서는 엄마-아동의 대화중에 발생하는 문장의 "테마적 진행성(thematic development)"에 초점을 두었다. 문장의 테마적 진행성이란, 엄마가 말하는 문장이 아동이 앞서 한 문장의 테마에 얼마나 반응적인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이 테마적 진행성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 시켜볼 수 있다.

(1) 긍정적 진행(Positive progression)

여기서는 엄마가 아동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아동의 대화 테마가 엄마의 반응에 의해서 점진적인 발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이다.

예) 아동;엄마, 개이름 알어?
엄마;그럼, 효성이지.

(2) 부정적 진행(Negative progression)

엄마의 반응이 전에 나온 아동의 대화테마와 전혀 관련이 없다든가, 혹은 엄마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를 이르며, 여기서는 아동의 대화 테마는 엄마의 반응으로 아무런 진행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 아동;이거 뭐야 엄마?
엄마;(무응답)

(3) 중성적 진행(Neutral progression)

부정적 진행의 경우와는 달리 엄마가 나름대로 관련성 있는 반응은 보이지만 아동의 대화테마의 진행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이른다.

예) 아동;이거 사과지.
엄마;이거?

테마적 진행성을 범주화 시켜 보는 과정에서 두가지 중요한 사실이 관찰되었다. 하나는 한국 엄마들은 캐나다 엄마들 보다 중성적 진행의 문장을 훨씬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표4).

또 다른 관찰 사실은 중성적 진행 문장의 대부분이 서양의 문화에서 지적한 명확성 요구 문장들과 매우 흡사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서양의 문헌에 나타난 명확성 요구 문장(밑줄친 문장)들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아동;이 안으로 들어가.

<표-4> 한국과 캐나다 엄마들의 중성적 진행 문장 사용 비율

	한 국		캐나다		
	f	%	f	%	z score
긍정적 진행	2729	68	3665	82	-14.909**
부정적 진행	671	17	602	13	5.1699**
중성적 진행	639	16	217	5	16.975**
합	4030		4484		

**p<.001

엄마;응?
(Cherry, 1977, p.275)

아동;저 나무.
엄마;뭐?
(Furrow & Lewis, 1987)

아동;이거 부러졌어.
엄마;이게 부러져?
(Cherry, 1977, p.275)

아동;난 믿을 수 없어.
엄마;너?
(Corsaro, 1977, p.190)

반면, 본 연구자의 연구에 나타난 중성적 진행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위의 다른 연구자들이 지적한 문장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이 주목시 된다.

(1) 비지정적

아동;나 호수에 갔었지.
엄마;응?

(2) 전체 반복적

아동;나 이거 싫어.
엄마;너 그게 싫어

(3) 부분 반복적

아동;성규는 어제 안왔어.
엄마;안왔어 ?

(4) 보완적

엄마;어제 뭐 했어?
아동;찰흙 만들었어.
엄마;어제 찰흙 만들었어?

"뭐?"와 같은 구체적 명확성 요구 문장은 테마적 진행성 측면에서 보면 긍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성적 진행 문장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명확성 요구 문장은 위의 4가지 중성적 진행 문장범주에 속한다. 이들 "중성적 진행-명확성 요구(이하 중-명)" 문장들은 1) 모두 의문문 형식을 띠며 2) 아동의 대화 테마의 실질적인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중-명 문장들은 서양문헌에서 지적한 대로 수선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가? 왜 한국의 엄마들은 서양의 엄마보다 높은 중-명 문장의 사용비율을 보이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엄마들이 중-명 문장을 사용한 대화상황을 살펴보고 이 대화 상황들의 불명확성과 애매성을 측정하였다(표5).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수선적 기능 모형과는 달리, 중-명 문장들이 대화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중-명 문장에 관련된 문제적 대화 상황이 비율적으로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선적 기능 가설을 반박할

<표-5> 중-명 문장 상황의 불명확성과 애매성

	한 국		캐나다		
	f	%	f	%	z score
문제적인 중-명 문장상황	44	7	13	7	0
총 중-명 문장상황	611		190		

수 없다. 왜냐하면 위에 나타난 7%에 속하는 상황에서 만약 중-명 문장이 수선적 기능을 발휘했다면, 수선적 기능 모형은 그대로 타당한 설이 되고, 다만 약소해진 비율은 현 연구에 참가한 아동들이 (4세) 다른 연구에 참가한 아동들(2~4세) 보다 언어적으로 더 성숙한 것을 요인으로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명 문장의 대화적 기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중-명 문장이 사용된 대화적 상황과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 결과 중-명 문장이 삽입된 대화상황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범주화 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 구조의 대부분이 중-명 문장의 "반수선적 기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중복적 구조:중-명 문장이 삽입됨으로써 테마적 진행이 중복되는 경우를 이른다.

아동;(a) 나 이거 싫어.

엄마;(b) 너 이거 싫어?

아동;(c) 응 싫어.

엄마;(d) 그럼 먹지마.

여기서 아동의 선 문장(a)에 대한 실제적인 테마적 진행은 엄마의 (d) 문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엄마의 중-명 문장 (b)는 (d)에 이르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b) 문장으로 인해서 테마적으로 불확실한 것이 확실하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동의 문장 (a)는 처음부터 명확한 것이었고 엄마의 테마적 진행 문장 (d)는 (a) 다음에 바로 나올 수도 있었다. 여기서 엄마의 중-명 문장 (b)는 원래 (a)-(d)로 이어지는 대화구조 중간에 (b)-(c)를 중복적으로 삽입케하는 기능만을 하고 있다.

(2) 중간적 구조;엄마의 중-명 문장이 엄마의 테마적 진행 문장 바로 전에 중간적인 단계로 삽입되는 경우를 이른다.

아동;엄마 나 이렇게 하는 거 좋아.

엄마;(a) 너? (b)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실제적인 대화적 진행은 (b)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a)는 (b)로 넘어가기 전의, 비 수선적 기능을 지닌 "건네주기" 문장의 역할을 한다.

(3) 촉진적 구조;엄마의 중-명 문장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 문장을 테마적으로 스스로 진행시키게 하는 결과를 낳는 구조를 이른다.

아동;(a) 나 성규네 집에 갈래.

엄마;(b) 너?

아동;(c) 응 거기 재식이도 있어.

엄마의 중-명 문장 (b)를, 아동이 명확성 요구를 위한 문장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는 상황에 있다면 아동은 엄마의 (b) 문장에 대해 확인적인 문장으로 대처했을 것이다. 아동이 확인적 문장이 아닌, 테마적 진행의 문장 (c)로 대응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문장 (a)의 명확성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문장 (a)는 처음부터 수선의 요구를 받아야 할 문제를 지니지 않은 정상적인 문장이다.

(4) 확인적 구조;엄마의 중-명 문장이 아동에게 아동이 말한 내용을 확인토록 하는 요구만 제시하고 아동의 확인에 대한 더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아동;(a) 나 집 지을거야.

엄마;(b) 네가?

아동;(c) 응.

엄마;(무응답)

아동의 첫번째 문장 (a)는 아무런 불투명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는 정상적인 대화 표현이다. 따라서 (b)는 수선적 기능을 발휘할 아무런 이유을 찾지 못한다. 설사 (b)가 수선적 기능을 목표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확인 문장 (c)에 대해서 엄마가 더 이상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엄마는 (a)의 확실성·명확성 여부를 가리는데 관심이 없었음을 시사한다.

(5) 정상적 구조;이 경우는 엄마의 중-명 문장이 수선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는 구조이다.

아동;(a) 이게 아니야.
엄마;(b) 이거? (노란종이)
아동;(c) 아니 이거. (파란종이)
엄마;(d) 응 그 파란거.

여기서 엄마의 (b) 문장은 아동이 (a)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이거"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구조를 후속적으로 연결시켜 나간다. 즉 (b)로 인해서 (d)가 후속적으로 가능케된다.

(6) 그외 구조;위의 6가지 구조에 속하지 않는 제반 구조적 형식을 포함한다.

아동;그거 쉬워. 내가 찾을께.
엄마;네가 찾아?
아동;(무응답)

위의 5가지 중-명 문장의 구조적 상황별로, 양집단의 중-명 문장을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표6 참조).

두가지 사실이 주목된다. 첫째는 양 집단에서 모두 반 수선적 기능을 지지하는 구조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중-명 문장의 수선적 기능 모형은 현 자료와 관련해서는 타당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한국의 엄마들이 중복적인 구조를 이끄는 중-명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표4에 나온 결과와 합해서 살펴보면 한국의 엄마들은 캐나다 엄마들에 비해 문장의 진행에 있어서도 증성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명 문장을 사용해 대화구조를 중복적인 성질의 것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명 문장이 수선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님이 확인된 이상, 위의 결과를 한국 엄마들의 대화의 수선적 기능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국 엄마들의 이

<표-6> 엄마들의 중-명 문장의 구조적 상황 비율

	한 국		캐나다		
	f	%	f	%	zscore
┌중복적 구조	228	37	42	22	3.82 **
중간적 구조	139	23	49	25	- .852
촉진적 구조	114	19	55	29	-2.951**
└확인적 구조	66	11	21	11	0
정상적 구조	37	6	13	0	3.398**
그외 구조	27	4	22	12	-4.019**
총 합	611		190		

[는 수선적 기능을 반증하는 구조들

러한 특수한 대화 패턴을 다음 장에서 새로운 각도로 조명해 보기로 한다.

4. 토의;중-명 문장의 심리사회적 모형

대화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두가지 있다. 첫째로 대화자는 자신의 대화적 접근에 대해서 상대편 대화자가 반응을 보이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둘째로 상대편 대화자의 대화적 접근도 자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편이 되는 자신이 적절한 반응을 보일 것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발생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Schutz, 1967).

아동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 엄마는 위의 두 조건을 원칙적으로는 충족시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린 아동의 경우 아직 미숙된 자아개념과 언어적 능력으로 인해 성숙된 하나의 독립적 대화 상대자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간의 연구(예, schaffer, 1977;Bullowa, 1979)들에 따르면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는 엄마는 아동을 성숙된 대화 상대자로 가정을 하고(adultmorphosize), 아동이 실제적으로 상대 대화자의 역할을 실행하든지 못하든지에 상관없이 대화를 정상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바로 이러한 엄마의 일방적인 노력 때문에 아직 성숙치 못한 아동도 엄마의 대화 상대자로서의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한다.

만약에 엄마가 아동을 상대로 이러한 대화적 가정을 잘 할 수 없는 경우 엄마는 아동의 대화적 노력에 "미심쩍은" 반응을 보이고 아동이 한 대화를, 한 개인의 독립된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이는데 덜 적극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을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가정하고, 그가 표현하는 것을 위의 두가정에 비추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엄마의 중-명 문장은 바로 이러한 엄마의 미심쩍은 심리패턴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서 분석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엄마의 중-명 문장은 아이들의 대화표현이 부정확하고,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지적, 수정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아동의 대화 표현이 정상적인 경우에도 오히려 엄마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번 더 아동에게 확인을 시키는 절차를 밟는다.

이때는 실제적으로 확인을 시킬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한 엄마의 미심쩍은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엄마의 중-명 문장이 야기시키는 특수한 심리적 효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동이 자신이 한 말이 엄마의 중-명 문장을 통해서 다시 자신에게 되물어 돌아왔을 때 그 아동은 자신의 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받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이 엄마라는 다른 독립된 개체를 통해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한 말이지만, 마치 상대방이 한 말 처럼 지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엄마는 중-명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에게 아동 자신이 한 의사 표현에 대한 자각적 의식을 높이게 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는 곧 독립된 개체적 대화자로서의 아동의 의식을 향상 시키는 결과를 빚는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엄마의 중-명 문장은 엄마의 미심쩍은 아동의 개체적 대화 상대자로서의 위치에서 비롯된 대화적 태도의 반영이며, 그 효과는 아동의 개체적 대화자로서의 자각적인 의식을 높이는데 있다.

한국의 엄마들이 중-명 문장을 캐나다의 엄마들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곧 전자의 엄마들이 아동을 독립적인 개체로 보는 지각을 용이하게 발동

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캐나다의 엄마들은 아동을 심리사회적으로 엄마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개체로 보는 심리적 지각이 더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엄마들의 아동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각의 차이는 각 문화권내의 일반적인 "대인 심리사회 지각(The psychosocial perception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패턴의 차이로 귀인시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대인간의 심리사회적 지각이 "관계성(relationship)"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학생과 교수, 부모와 자식, 연장자와 연소자 등과 같이 대부분의 사회적 심리지각은 당사자간의 관계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지, 그 당사자간의 독립된 개체성을 강조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엄마와 아동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을 대하는 한국엄마는 엄마와 아동이라는 그 관계성 속에서 연류되는 각기 다른 사회적 역할로 자신과 아동을 지각하게 되지, 각기 다른 독립된 개체로써 지각을 하지 못한다. 엄마와 아동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자신과 아동의 대화적 위치를 지각하게 되면, 엄마는 아동을 보살피고 도와주려고 하는 엄마로서의 본유적인 역할이 발동되며, "보조적(assisting)" 대화 패턴을 취할 기능성이 높아진다. 이 보조적인 대화 패턴에서는 아동의 독립된 개체적 대화상대자로서의 지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결과가 곧 한국 엄마들의 빈번한 중-명 문장 사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관계성 보다는 개인성을 강조하는 서양의 캐나다 엄마들은 보조적 대화패턴 보다는 "동료적(collegiate)" 대화 패턴을 취하게 된다. 즉 아동이 엄마의 자식이라는 지각보다, 하나의 대화적 상대자로서의 의식이 한층 고조되어 아동을 엄마와 동등한 대화 상대자로 간주하려는 노력이 발동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의 "성인적 대화자"로서의 위치를 높이려는 또 다른 노력을 낳게되고, 이러한 노력이 캐나다 엄마들의 긍적적 테마 진행성과 비중복적 대화구조 등과 같은 대화적 특성을 야기시키게 된다.

결국 엄마들의 중-명 문장 사용과, 이 특이한 대화패턴의 문화적 차이는 각 문화권 내에서의 일반적인 대인지각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엄마들의 아동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각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곧 엄마 아동의 대화패턴이 그들이 속한 문화의 일반적인 대화패턴의 성질에서 근본적으로 이탈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시에 엄마-아동의 대화는 단순한 언어적 현상이기 이전에 엄마-아동간의 심리사회적 역동성을 반영하는 "심리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엄마-아동의 대화작용에 관한 심리적·사회 문화적 접근이 한층 더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Bullowa, M.(Ed.).(1979). *Before speech: The beginning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Cherry, L.J.(1979). The role of adult's requests for clarification in the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In R.D. Friede(Ed.), *New directions in discourse processing.* Norwood, N.J.:Ablex.

Corsaro, W.A.(1977). The clarification request as a feature of adult interactive styles with young children. *Language in Society, 6,* 183-207.

Furrow, D., & Lewis, S.(1978). The role of the initial utterance in contingent query sequences:Its influence on responses to requests for clarifica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8,* 51-62.

Gallagher, T.M.(1981). Contingent query sequences within adult-child discourse. *Journal of Child Language, 8,* 51-62.

Langford, D.(1981). The clarification requestX sequence in convers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P. Frence & M. Maclure(Eds.), *Adult-child conversation.* London:Croomhelm.

Schaffer, H.R.(1977). *Studies in mother-infant interaction.* New York:Academic Press.

Schutz, A.(1967).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Evanston: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韓國心理學會誌 : 發達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90. Vol. 3, No. 1, 48~57

Abstract

THE PSYCHOSOCIAL TOPOGRAPHY OF MOTHERS' "CLARIFICATION REQUEST" UTTERANCES

Soo-Hyang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The study is concerned with the communicative function of Korean mothers' Clarification Requestes(CR) utterances.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CR utterances in that mothers clarify the children's obscure or misunderstood utterdn by producing CR utterances. According to this "repairing" view, the main purpose for mothers to produce CR utterances is to smooth the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by correcting troubled communicative exchanges. The contention of this essay is that this "repair thesis" of CR utterances does not suitably account for their communicative function in the Korean mother-child interaction. The essay rather emphasizes the psychosocial underpinnings of korean mothers' CR communication.

Four middle class mother and child dyads were drawn: two from Seoul, Korea and two from Edmonton, Canada. The participating children were all 4 year old boys. 15 sessions of 30 minute video-tapings were made in their home environment. The data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psychosocial dynamics of CR utterances.

The Korean mothers tended to produce more CR types of utterances than their Canadian counterparts. This observation could not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repair thesis. First of all, in both groups of mothers, the

majority of CR utterances occurred in contexts wherein the childern's utterances were clear in their meaning and intention, therefore there was no need to issue a clarification process. Secondly, most CR utterances tended to result in thematically redundant turns between the mothers and the children, and no function to correct or smooth troubled communication was observed.

An alternative perspective argued that the Korean mothers' "hesitating" view of the children's communicative "reciprocity potential" is responsible for their frequent use of CR utterances. And this culture-specific psychosocial assumption of the mothers and the corresponding communicative patterns function to socialize the children into a specific view of social relationship, showing how to organize this social relationship in a communicative context.

An emphasis was placed upon an intergrated view of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socialization process.